

예산안·인사 청문회 첩첩산중... 與野, 대격돌 예고

오늘부터 농식품부·기재부 등 '2기 내각'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릴레이 야 "인사 참사" 송곳 검증 예고...법정 처리시킨 넘긴 예산안도 교착 상태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인사청문 정국까지 겹치면서 연발 여의도 안팎에서 고성어 오갈 전망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후

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내내 이어진다.

민주당은 "총선용 개각마저 인사 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와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어 강 후

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0일 분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총예산 656조9천억원 가운데 56조9천억원 규모로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17일 현재까지도 정부 특수활동비-연구개발(R&D)-새만금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 특별비를 대폭 축소해 R&D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의 순증액 요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협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28일 분회의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선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포기한 채 정부 예산안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적

으로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추후 분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뿐인 만큼 예산안이 28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28일 분회의 때 쌍특검법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같은 날 예산안까지 동시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별검사 법안이고, 3개 국정조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중민 전 비대위원장, 금태섭,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희망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오전 영장심사... 돈 봉투 개입·증거인멸 우려 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당내에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일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구속 여부를 관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고 본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도 재판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싱크탱크인 먹사연이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돈 봉투 수사가 풀리지 않자 먹사연 후원금을 엮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한다고 반박한다. /연합뉴스

이준석·양향자 '제3지대' 서 만나나

유튜브 채널서 공개 대담...비공개 회동 이어 두번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제3지대 정치세력 중 하나인 한국희망 양향자 당 대표(광주 서구을)가 공개 대담을 하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와 양 대표는 지난 16일 이 전 대표가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 출연, 약 3시간 반 동안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동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삶의 스토리가 신화에 가깝다"며 "삼성 이견희 회장과 권오연 회장, 진대제-황창규 사장 등 영웅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같이 갈 수 있는 동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한국희망에 있는 다른 식구들도 보고 싶다.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같은 공학도 출신이자 정치 혁신의 동지"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준석 대표와 꿈을 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함께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관한 미래 로드맵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대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어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강승철 광주 서갑 예비후보, 폭설 피해 예방 활동

버스 승강장 배수구 청소 등

강승철 광주 서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진보당)가 광주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펼쳤다.

강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 서구 화정2동 일대에서 버스 승강장 주변 배수구 청소 등 폭설 피해 예방 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비닐 등 쓰레기에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대비하고 낙엽·오물 등으로 인해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배수구를 청소했다. 고인 물을 뚫어 동파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도 했다.

강 후보는 이날도 당원들과 함께 상가 밀집 지역, 횡단보도 주변 등에 쌓인 눈을 치우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강 후보는 "폭설로 인해 도로에 눈이 쌓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방판길 낙상·골절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폭설 예보를 접하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